

아시아나, 금호 떠났다... 2조5000억 매각

현산과 계약 체결 '내년 4월까지 마무리' 금호 대기업집단 제외... 지역 경제 '착잡'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31년만에 금호그룹을 떠났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금호그룹은 아시아나를 매각함으로써 그룹의 면모를 잃고 중견기업으로 내려앉게 됐다. 광주·전남 지역민과 경제계는 금호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사라졌다는 정신적 박탈감 때문이다.

29일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SPA)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 아시아나항공 매매계약을 마무리했다.

현산 컨소시엄은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868만8063주(지분율 30.77%)를 3228억원에 인수했다. 구주 인수 가격은 주당 4700원을 적용했다.

현산 컨소시엄과 금호산업은 이날 각자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SPA를 체결하는 안을 의결한 뒤 법무대리인을 통한 서류 작업으로 본계약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현산 컨소시엄은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게 될 2조1772억원 규모의 신주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주당 액면가 5000원에 2억9329만7400주의 보통주식(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이는 현산 컨소시엄과의 신주인수계약 금액(2조1772억원) 중 1조4665억원에 대한 1차 유상증자 절차의 사항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총 인수금액(2조5000억원) 중 구주와 신주를 포함해 2조101억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1.5%(변동 가능)를 확보하게 된다. 신주 주당 가격(5000원)은 유상증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재무적투자자(FI)로 4899억여원을 부담해 약 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창립 31주년인 올해 금호그룹에서 HDC그룹으로 주인이 바뀌게 됐다. 인수 대상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금호리조트 등도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년 4월까지 국내외의 기업결합 신고 등 모든 인수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즉시 인수작업에 착수해 아시아나항공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HDC그룹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빨리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됨에 따라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난해 금호타이어가 중국계 더블스타에 팔린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까지 줄줄이 매각되면서 사실상 금호그룹엔 건설회사인 금호산업과 운수업체인 금호고속 등 2개 계열사만 남았다. 특히 그룹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자산 규모는 중견그룹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그룹의 재계 순위도 6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이를 지켜보는 광주·전남 지역민과 경제계는 착잡해하고 있다. 지역 대표 기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호남의 자원으로 삼았다. 중고택시 2대로 창립해 재계 7위까지 오른 금호그룹의 저력이 자랑스러웠고, 그룹의 뿌리인 호남을 잊지 않고 제조·운송·문화·인재육성 등 종합적인 자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다. /박정욱 기자 jwpark@



아시아나항공 매각 어떻게 추진됐나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발표, 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추진

2010년 1월 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시작

2013년 11월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대표이사 복귀

201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종료

2015년 12월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인수

2019년

3월 22일 상의회계법인,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한정'

3월 26일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재무제표 수정 및 감사의견 '적정' 공시 '아시아나 2018년 영업이익 887억원-282억원'

3월 28일 박삼구 회장,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대표이사 사퇴

4월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에 지구계획 제출

4월 11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금호아시아나그룹 지구계획 거부

4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수정 지구계획 제출

4월 23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자금 1조7,300억원 투입 결정

7월 25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매각 공고

9월 3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입찰 마감

11월 7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 마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제주항공(예정)-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벵커스트 컨소시엄 선정

11월 12일 금호산업 이사회,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선정

12월 27일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각자 이사회 열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안 가결(거래 금액 3,200억)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매출 낮다

광주 1.8%, 전남 4.1% 증가 통계청, 가맹점 조사 결과

지난해 광주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증가율이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가맹점 매출액도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광주 1조8630억원·전남 1조8360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매출액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나란히 13, 14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한 프랜차이즈 매출액 증가율은 광주가 1.8%에 그쳐 전국 14 번째였다. 전남 증가율도 평균(5.8%)을 밑도는 4.1%로, 전국 하위권(10위)에 속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6139개로 전년보다 17개(0.2%) 줄었다. 반면 전남은 전년보다 119개(1.8%) 늘어난 6513개를 기록했다. 전국 가맹점수는 20만8618개로 광주·전남 지역은 각각 2.9%, 3.1%를 차지했다.

같은 날 발표된 '20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역별 사

■ 지난해 프랜차이즈 매출 (단위:억)

1 경기	17조5290억	10 충북	1조9830억
2 서울	14조9520억	11 전북	1조9700억
3 부산	4조510억	12 대전	1조9180억
4 경남	4조90억	13 광주	1조8630억
5 인천	3조9070억	14 전남	1조8360억
6 충남	2조829억	15 울산	1조4470억
7 경북	2조7180억	16 제주	1조400억
8 대구	2조6100억	17 세종	4030억
9 강원	2조900억		

(자료: 통계청)

업체 수는 광주 8만1000개·전남 10만 6000개로 집계됐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광주지역 사업체 77.5%는 점포를 임차하고 있었다. 전남 사업체 39.6%는 점포를 소유하면서 그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평균 보증금은 광주 1866만원·전남 1928만원으로 집계됐고, 월세는 광주 94만원·전남 81만원으로 전국 평균(122만원) 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평균 1억 3000만원을 들여 9개월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창업하고, 연간 3400만원 이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 "내년 1월 경기 안 좋다"

내수부진·과당경쟁 원인... 경기전망지수 77.1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조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본부가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192곳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경기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연합 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77.1로 전월보다 13.5포인트 급락했다.

SBHI가 100 이상이면 기업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전월(94.7) 대비 16.1포인트 하락한 78.6, 전남은 전월(83.6) 대비 9.3포인트 하락한 74.3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84.3)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84.1, 비제조업은 전월(95.8) 대비 24.3포인트 급락한 71.5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 전망(87.5→75.8)·경상이익 전망(81.3→74.5)·자금사정전망(76.0→71.4)은 전월과 비교해 하락했다.

반면, 수출 전망은 89.1→95.7로 상승했다. 고용수준 전망(102.3→101.6)은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고용환경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경영 애로는 '내수부진'(65.1%), '업체 간 과당경쟁'(43.8%), '인건비 상승'(42.7%), '판매대금 회수지연'(30.2%), '자금 조달 곤란'(24.0%) 순으로 꼽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

■ 로도복권 (제189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3 28 31 39 41	1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082,673,947	7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6,707,182	77
3	5개 숫자일치	1,472,147	2,443
4	4개 숫자일치	50,000	122,132
5	3개 숫자일치	5,000	1,998,623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

중기부,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스마트 공장 도입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보다 4113억원 늘어난 2조4956억원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30일 통합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지원, 재기 지원 등 총 25가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세부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1700억원은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투입된다. 또 지역 내 도시 정비나 재개발로 손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용자금 100억원을 신설했고, 제도전 특별자금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

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구매 패턴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온라인 시장 진출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 80억원에서 내년 31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1인 크리에이터와 제품 매칭, '가치샵사 TV'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상품화 지원과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150개 업체에 생장 혁신형 기술 개발 자금 33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을 위해 1050개 업체에 16억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돕는 리턴 패키지 사업(345억원), 비교할-틈새업종으로 전환 교육을 지원하는 재창업 패키지 사업(75억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품질안전향 안전품질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김인환(오른쪽)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이 최우수상을 받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품질혁신대상 최우수상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혁신연구원과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안전품질혁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지난 4월 안전 전담부서인 안전보안실을 신설하고, 여수·광양항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항만근로자 작업장 개선방안 수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노력했다.

특히 공사는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파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